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어려움과 적응 프로그램 요구도*

Difficulties of immigrant women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in Raising Children and Needs for Adaptation Program-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현은애
부교수 나종혜**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Guidance, Hannam University
Doctoral Candidate : Hyun, Eun-Ae
Associate Professor : Rha, Jong-Ha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iculties and needs for adaptation program of married immigrant women raising children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27 Day care centers in Guemsan County, Chungnam Province. 20 senior teachers of day care centers and 58 mothers who had immigrated into Korea by international marriage were asked to complete a packet of questionnaire designed by researchers for this study,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20 senior teachers and 6 mothers who could communicate in Korean. Data were analyzed by using frequency analysis, one way ANOVA, and cross-section analysis. The outcome of this study showed as follows : 1) The number of entire married immigrant women's children attending day care centers at Guemsan area was 102 persons. 2) Immigrant mothers felt that the lack of their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makes them difficult in raising children in Korea, whereas the day care teachers felt that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was delayed. 3) According to the survey of adaptation programa for married immigrant women's children, there was few program at the time of survey, only two daycare centers conducted multi-cultural education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once or twice a year. Teachers required Korean language education, grievance counseling (?) for the mothers. Immigrant mothers required multi-cultural education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 married immigrant women, married immigrant women's children, daycare center, Guemsan

I. 서론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우리사회는 다양한 문화권으로부터 이주민의 증가로 다원화되고 다문화적 특성을 지닌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결혼이주가정이 점차 증가하여 2007년 현재 전국 15만 가구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나 2020년이 되면 10배로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영순, 2007). 통계청이 2008년 3월 발표한 체류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통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138,562명이다.

2005년 한 해만 해도 국제결혼건수가 43,121건으로 우리나라 총 결혼건수의 13.6%를 차지하였다. 이는 1990년 국제결혼건수 619건(총 결혼건수의 1.2%)에 비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결과이다. 국제결혼 중 외국인 남성과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은 23.9%, 외국인 여성과 우리나라 남성의 결혼은 76.1%로 외국 여성과 우리나라 남성의 결혼이 절대적으로 많다(통계청, 2007).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농어촌지역은 전체 결혼의 35.9%가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다. 이것은 농촌총각 3명중 1명은 국제결혼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통계청, 2007). 이렇게 한국 남성과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Jong-Hay Rha
Tel: 82-42-629-7893, Fax: 82-42-629-7437
E-mail: jhrha@hnu.ac.kr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여성결혼이민자'라 부른다(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자녀도 당연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통계치는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 가정을 모두 포함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계치일 뿐, 여성결혼이민자나 그들의 자녀만을 따로 조사한 통계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 자녀가 2004년 6,061명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7,998명, 2007년에는 8,564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렇게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가 2010년이면 1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된다(교육 인적 자원부, 2007). 이들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교육부, 200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수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한국인인 이들 자녀의 국적은 한국이고, 여성결혼이민자도 결혼 후 2년이 경과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더욱이 취학 전 자녀의 숫자를 정확히 알기는 매우 어렵다(오성배, 2007).

이렇게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국적은 대부분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출생 이후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기 때문에 또래들과는 아주 다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박미경, 2007).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성장 발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이들의 가정 특성을 검토하면 예상될 수 있다. 국제결혼을 한 대다수의 한국 남성들은 결혼하기 이전부터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의 사람들로 주로 농촌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는 경우가 많으며(이혜경, 2005) 일부 여성들은 가정 내 폭행이나 폭언, 경제적 학대 등으로 불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탄티튀히엔, 2006; 하밍타잉, 2005; 한건수, 2006).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결혼 초에 가장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부부간 문화와 언어 사회적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조영달, 2006). 이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는 결혼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미처 한국 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오성배, 2005). 따라서 이러한 어머니의 미숙한 언어능력은 자녀 양육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어머니와 자녀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언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상희, 2006; 정은희, 2004; 황삼심, 2007).

한국이주여성 인권 센터가 200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은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로 인해 생후 정기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예방접종도 제때에 하지 못하고, 언어발달장애를 종종 겪으며, 피부색이나 생김새의 차이로 또래집단으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2005). 또한 장기적 공핍으로 인해 체격도 왜소하며, 취학 후에도 어머니가 자녀의 숙제를 거의 돌봐주지 못해 학습부진현상을 겪는다(박선영, 2006). 이렇게 청소년으로 성장한 후에는 정체성의 혼란과 더불어 모자간 대화도 어려워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이슈화되는 것도 이들이 학령기에 접어들어 학교에서의 부적응이 나타나기 때문이다(김민화, 신혜은, 2008).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오성배, 2007). 여성결혼이민자 자녀가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아 자신의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취학 전 단계부터 이들의 적응을 돕는 교육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김재영, 2006; 안은미, 2007). 특히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교사와 교육 프로그램의 역할이 여성결혼이민자녀의 적응을 돕는 가장 중요한 변인인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바 있다(박미경, 2007; Adams, 2006; Seefeldt, 2005;).

2006년 영유아 무상보육지원 정책이 공표된 이후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취원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적응을 돕는 바람직한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고 학령기 아동에 관한 연구가 몇 편 있을 뿐(김갑성, 2006; 김경자, 2007; 김오남, 2006; 박은애, 2007; 정은희, 2004; 정지영, 2008; 정현영, 2006; 홍영숙, 2007)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실시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유치원 생활에 대한 연구도 소수 어린이들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였을 뿐(박미경, 2007; 장은숙, 2008) 취학 전 연령의 아동을 키우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특히 취학 전 자녀가 많은 지역인 충남 금산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취원 현황을 알아보고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양육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실태와 이에 대한 여성결혼이민

자와 교사의 요구도를 알아봄으로써 국내에 매우 부족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어린이집 취원 현황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어려움에 대한 교사, 어머니의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내용 3) 어린이집에서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현황 및 이에 대한 교사, 어머니의 요구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금산군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58명과 그 어머니, 그리고 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담임교사 20명이다. 본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충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 중 취학 전 연령의 자녀수를 알아본 결과는 <표 1>과 같았다. 충남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취학 전 자녀 총 1080명 중 그 수가 가장 많이 보고된 금산군(114명)과 서산시(114명) 중 연구자가 지역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금산군을 선정하였다. 먼저 금산구청을 통하여 금산군 어린이집 현황자료를 받아 금산군에 소재하는 전

<표 1> 충남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취학전 자녀수

시군별	여성결혼이민자 취학전 자녀수
천안시	78
공주시	78
보령시	31
아산시	46
서산시	114
논산시	82
계룡시	3
금산군	114
연기군	39
부여군	101
서천군	40
청양군	62
홍성군	82
예산군	53
태안군	52
당진군	105
계	1080

출처 : 대전, 충남지역 이주민 한국어 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한남대학교 한국어학당 2006

체 어린이집 27개소에 연락을 하여 원장 및 교사와 전화 면담을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자녀가 1명 이상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20개소의 명단을 뽑았다. 이 20개소 어린이집을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담임교사 20명의 협조를 구하고 이들을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 102명을 소개받아 이 중 설문에 응답한 58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여성결혼이민자 58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구대상 여성결혼이민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나이가 30대 초반이 25명(4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후반 10명(17%), 20대 후반이 9명(15%), 40대 초반이 5명(10%), 20대 초반이 5명(8%), 40대 후반이 3명(5%)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은 베트남이 22명(37%)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8명(31%), 필리핀 14명(24%), 일본 3명(5.2%), 태국 1명(1.7%)이었다.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의 경우 상하의 수준으로 구분해 볼 때 “하”집단은 65%(부족 48%+매우 부족17%)로 나타나 과반수가 훨씬 넘게 한국어

<표 2> 여성결혼이민자의 일반적 특성 (N=58)

	구분	빈도(%)
어머니 나이	20대초	5 (8.6)
	20대후	9 (15.5)
	30대초	25 (43.1)
	30대후	10 (17.2)
	40대초	6 (10.4)
	40대후	3 (5.2)
출신국	베트남	22 (37.9)
	필리핀	14 (24.1)
	중국	18 (31.0)
	일본	3 (5.2)
	태국	1 (1.7)
한국어 실력	매우잘함	3 (5.2)
	잘함	17 (29.3)
	무족	28 (48.3)
	매우부족	10 (17.2)
한국 입국년도	1990년초반	16 (28.1)
	1990년후반	2 (3.5)
	2000년초반	39 (68.42)
남편 직업	농업	25 (43.1)
	자영업	11 (18.9)
	노동	14 (24.1)
	회사원	3 (5.2)
	무직	3 (5.2)
자녀성별	기타	2 (3.5)
	남	27 (46.6)
자녀수	여	31 (53.4)
	1명	30 (51.7)
	2명	12 (20.7)
	3명	9 (15.5)
	4명	3 (5.2)
	5명	1 (1.7)
	6명	3 (5.2)

실력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혼성(2007)의 연구에 여성결혼이민자의 53.5%가 말하기, 읽기, 쓰기에서 부족하다는 결과보다 조금 높은 수치로 연구대상자 어머니들이 대부분(39명 68%)이 2000년대 이후 한국에 이주하였음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이다.

남편의 직업으로는 농업이 43%로 가장 많았고, 노동이 24%, 자영업이 18%, 회사원이 5%, 무직 5%, 기타 3%(공무원, 영어강사) 등으로 나타났다. 대상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수는 1명인 경우 30명(51%), 2명인 경우 12명(20%), 3명인 경우 9명(15%)순으로 대부분 3명 이하이었으나 4명 이상인 경우도 7명(12%)이나 되었다.

한 편, 연구에 참여한 교사 20명의 특징으로는 먼저, 연령은 대부분이 20대(17명, 85%)였고 30대가 2명, 40대 1명이었다. 30대와 40대의 경우에는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었다. 종사하는 어린이집 유형은 국공립 7개소, 민간 어린이집 10개소, 가정 어린이집 3개소였다. 어린이집 근무 연수는 5년 미만(17명, 85%)이 가장 많았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를 맡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보육교사 경험이 많지 않은 교사들이었다.

2. 연구 도구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어린이집 취원현황 및 유아양육의 어려움과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다문화자녀를 조사한 김갑성 (2006)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설문지”를 기초로 연구자가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설문지를 제작하여 아동발달 및 가족학 전공교수 2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구하였고 2차에 걸친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여성결혼이민자 즉 어머니용과 교사용의 두 가지로 제작하였는데, 어머니용 설문지는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녀양육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문제점, 어린이집에서의 자녀를 위한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교사용설문지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어려움과 적응 문제점, 어린이집에서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의 실시현황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어머니, 교사의 요구도는 ‘전혀 필요없음’ 1점에서 ‘매우 필요’ 4점 까지 4점 리커드 척도로 파악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설문지에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목격하여 전체 설문지를 5개 언어, 즉 한국어와 여성결혼이민자

의 모국어인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및 필리핀 여성을 위한 영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때 번역은 해당 언어에 조예가 깊으면서 국제결혼한 사람들과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모든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모국어와 한국어 설문지 세트를 주어 자신이 편하게 느끼는 언어로 응답하게 하였다.

3. 연구 절차

2007년10월 22일~12월 16일 까지 취학전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 7명(베트남 5명, 중국1명, 필리핀 1명)과 그 자녀의 담임교사 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설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설문지를 전격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해당 언어 전문가에 의하여 번역한 설문지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이해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하고 본 조사는 2007년 12월 22일부터 2008년 4월 15일까지 금산 지역 어린이집 20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대상 아동의 담임교사 20명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고, 교사의 협조를 구하여 102명의 어머니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교사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들고 교사와 1:1면담을 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20부(100%) 모두 회수 하였으나, 어머니 설문지는 교사를 통하여 회수하였기 때문에 20개의 어린이집을 3차례 방문을 하여도 60부(회수율 60%)밖에 회수할 수 없었고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한 5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이후 대상 어머니 58명 중 심층면접을 위한 어머니와의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개인정보입수도 쉽지 않았고 연락이 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대부분 면담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본연구자는 금산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 또는 종교단체에 참여하는 어머니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자는 2008년 4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주간 대상 어머니들이 참여하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수업을 참관하며, 대상 어머니들과의 라포를 형성하고 어느 정도 친한 관계가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들 어머니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으므로 한국어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은 각 어머니 당 최소 20분 정도 소요되었고 면담과정은 녹음되었다. 연구자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면서 자녀가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린이집에서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를 위해 어떤 적응 프로그램을 해 주기를 원하는지 등 연구 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 개방형 질문을 준비하여 면담에 임하였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모두 20대 어머니들이었고 베트남 어머니 3명 필리핀 어머니 1명, 중국 어머니 1명, 일본 어머니 1명이었는데 이 중 일본 어머니는 30대였다. 베트남 어머니 3명은 한국에 온지 5년 이하였고 아이들은 두 명이하였으며(임신 중 포함) 모두 남편이 노동직 근로자였다. 필리핀과 중국 어머니는 자녀가 1명이었고 한국에 온지 5년 이하였다. 필리핀 어머니의 남편은 노동직 근로자였고 중국 어머니의 남편은 농사를 짓고 있었다. 일본 어머니만 한국에 온지 5년 이상이었고 따라서 한국어를 가장 잘 하는 편이었고, 자녀는 두 명이였다.

4. 자료처리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과 교차분석(χ^2 검정)을 실시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 12.0 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추가로 수집한 면담 자료는 설문지의 분석내용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어린이집 취원 현황

금산군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취원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금산군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는 총 102명이었고 이들은 총 20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 어린이집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 어린이집 10개소에 52명(51.0%)으로 가장 많았고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에 39명(38.2%), 가정 어린이집 3개소에 11명(10.8%) 순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57명, 55.8%), 남자(45명, 44.2%)로 여자가 더 많았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세와 3세가 각각 36명, 32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세(15명, 14.7%), 5세(10명, 9.8%), 4세(9명, 8.8%) 순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 나타난 현황으로는 베트남 60명(58.8%)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18명(17.6%), 중국과 일본이 각각 11명(10.8%)이었다. 그 밖의 우즈베키

<표 3> 금산군 어린이집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취원 현황 (2008년도 3월 현재) (N=102)

구분		아동수(%)	계
설립유형별	국공립 (전체7개)	39(38.2)	102(100)
	민간(전체10개)	52(51.0)	
	가정(전체3개)	11(10.8)	
성별	남	45(44.2)	102(100)
	여	57(55.8)	
연령	1세	15(14.7)	102(100)
	2세	36(35.3)	
	3세	32(31.4)	
	4세	9(8.8)	
	5세	10(9.8)	
어머니 출신나라	베트남	60(58.8)	102(100)
	필리핀	18(17.6)	
	중국	11(10.8)	
	일본	11(10.8)	
	기타	2(2.0)	

스탄과 태국에서 온 여성들도 2명(2.0%)있었다.

2.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양육 어려움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인식

1) 여성결혼이민자가 느끼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

여성결혼이민자가 가능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문을 작성하고 자녀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하여 복수응답으로 표시하게 한 결과를 어머니의 출신국과 한국어 실력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이 느끼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 어머니 자신이 한국문화를 이해하지 못하여 자녀의 양육이 어렵다고 응답한 어머니가 50명(86.2%)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언어미숙이라고 응답한 어머니는 43명(74.1%)이었으며, 자녀교육과 관련된 경제문제를 어려움으로 느끼는 어머니는 38명(65.5%)이 응답하였다. 또한 자녀와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33명(56.8%), 자녀의 또래집단문제 33명(56.8%)이 응답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느끼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 알아본 결과 <표 4>에 제시한 것과 같이 베트남 출신 어머니의 경우, 22명(100%) 모두 자녀의 언어미숙이 가장 양육의 어려움으로 응답하였고 필리핀(85.7%)과 중국(83.3%), 일본(66.6%)의 경우에는 어머니

<표 4> 어머니 출신국에 따른 자녀 양육 어려움에 대한 어머니 인식(복수응답)

(N=58)

구분	베트남 (n=22)	필리핀 (n=14)	중국 (n=18)	일본 (n=3)	기타 (n=1)	합계	χ^2 -검정
자녀의 언어발달미숙	22 (100.0)	5 (35.7)	14 (77.7)	1 (33.3)	1 (100.0)	43 (74.1)	17.21*** (0.001)
자녀의 또래집단문제	18 (81.8)	4 (28.5)	9 (50.0)	1 (33.3)	1 (100.0)	33 (56.8)	8.38** (0.039)
어머니의 한국문화이해부족에 따른 양육의 어려움	20 (90.9)	12 (85.7)	15 (83.3)	2 (66.6)	1 (100.0)	50 (86.2)	1.65 (0.648)
자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16 (72.7)	8 (57.1)	8 (44.4)	1 (33.3)	0	33 (56.8)	2.93 (0.403)
자녀교육 관련 경제적문제	14 (63.6)	9 (64.2)	13 (72.2)	2 (66.6)	0	38 (65.5)	1.75 (0.626)
전체빈도	90	38	59	7	3	197	

* $p < .1$ ** $p < .05$ *** $p < .001$

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녀교육이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χ^2 검정결과 '자녀의 언어발달 미숙'($\chi^2=17.21$)과 '자녀의 또래집단 문제'($\chi^2=8.38$)의 두 문항에서 어머니의 출신국별로 어머니가 느끼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베트남과 중국 어머니들은 자녀가 한국말을 남들처럼 잘하지 못하고 어린이집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는 것에 대하여 일본과 필리핀 어머니들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추후 실시된 심층 면접에서도 나타났는데 특히 일본 어머니들의 경우 한국에 온지 오래되어 한국어에 비교적 능통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베트남 출신 어머니의 경우 2003년도 이후 급증함으로써 일본, 필리핀 어머니와 비교할 때 입국년도가 늦기 때문에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낮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심층 면접에서 얻어진 결과로 일본 어머니가 한국어 실력에 자신을 보인 반면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어렵다고 한 자료이다.

“우리아이는 일반아이와 똑 같아요. 한국말도 잘하고 친구도 많아요. 만약 제가 바블 때는 아빠가 아이들 도와줘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 어머니A)

“한국말 몰라요. 어려워요. 시어머니 말 몰라요. 큰소리 쳐요. 남편이 바보라고 해요 그래서 저 힘들어요. 아이는 아빠랑 말해요. 나는 몰라요” (베트남 어머니 C)

따라서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른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을 추가적으로 알아본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일본 어머니

($M=2.78$, $SD=0.81$)들이 베트남 어머니($M=1.91$, $SD=0.53$)들보다 한국어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F=5.19$, $p < .0032$).

한편, 어머니들이 직접 응답한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따른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자기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37명, 63.8%), 13명의 어머니들은 한국어를 잘한다고 느꼈고 특히 3명의 어머니들은 자신이 한국어를 매우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어머니들이 느끼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자신이 한국어를 매우 잘 한다고 한 어머니들은 대부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반면 한국어를 그럭저럭 잘 한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특히 어머니가 한국문화를 이해하지 못하여 자녀교육이 어렵다고 하였다.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은 대부분의 문항에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자녀의 언어발달이 늦을까봐 그리고 자신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여 양육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음은 심층면접을 통하여 얻어진 사례이다.

“놀고 자빠졌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남편이 저보고 자주 말해요. 내가 한국말 잘 모르니깐 아이교육도 잘 못하고...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안 도와줘요” (베트남 어머니B).

“엄마가 다른 나라 사람이니깐 우리아이 한국말 잘 못해요. 내가 한국말을 잘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한국말 잘 못해서 학교에서 공부 못할까봐 걱정 되요.” (베트남 어머니A)

<표 5> 어머니한국어 실력에 따른 자녀양육 어려움에 대한 어머니 인식

n=58

구분	매우잘함 (n=3)	잘함 (n=17)	부족 (n=28)	매우부족 (n=10)	합계 (n=58)	χ ² -검정
자녀의 언어발달미숙	1	10	25	6	42	9.06** (0.028)
	33.3	76.9	92.6	60.0	79.2	
자녀의 또래집단 문제	1	9	17	5	32	1.87 (0.600)
	33.3	69.2	63.0	50.0	60.4	
어머니의 한국문화이해부족에 따른 양육의 어려움	2	13	27	7	49	13.35** (0.004)
	66.7	100.0	100.0	70.0	92.5	
자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0	10	17	6	33	6.93* (0.074)
	0	76.9	63.0	60.0	62.3	
자녀교육 관련 경제적 문제	0	11	19	8	38	9.03** (0.029)
	0	84.6	70.4	80.0	71.7	
전체빈도	4	53	105	32	194	
전체가능빈도	15	85	180	50	290	

*p<.1 **p<.05 ***p<.001

한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비록 한국어 미숙으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녀의 교육에는 높은 관심을 보였고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는 김선하(2007)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여성 결혼이민자가정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소득 가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돈 많이 있어야 해요. 우리 아이 공부 시켜야 해요. 그런데 돈이 많이 없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필리핀 어머니A).

“고기 먹고 싶어요. 우리 돈 없어요. 고기 비싸요. 신랑 안 사줘요” (임신 4개월된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어머니).

특이한 것은 한국어 실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낀 어머니들은 오히려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들의 한국어 실력과는 상관없이 어머니들은 자녀의 또래집단 문제에 대하여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사가 인식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어려움

여성결혼이민자 자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표 6>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대상 교사 전원이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어려움으로 언어발달의 미숙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어머니와 의사소통의 어려움(18명, 90%), 어머니의 한국 문화 이해부족에서 오는 어려움(13명, 65%) 순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교사와의 심층 면접 내용에서도 종종 나타났다.

<표 6>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교사의 인식(복수응답) (N=20)

구분	빈도(%)
언어발달의 미숙	20 (100)
또래집단의 문제	6 (30)
어머니의 한국문화이해 부족에서 오는 자녀의 어려움	13 (65)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18 (90)
가정 경제문제에서 오는 불안정감	3 (15)
전체빈도(%)	60

“아이가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집으로 전화를 하면 어머니와 대화가 잘 안 되서 할머니와 전화를 많이 합니다. 가정통신문도 잘 보시지 않기 때문에 준비물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시거든요” (어린이집 교사B)

이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는다는 조영달(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오직 6명의 교사만이 아동에게 또래집단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 다른 부분에 비하여 비교적 교우관계가 어렵다고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 아동들의 나이가 어려서 또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래 집단의 문제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일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잘 노는 것 같아요. 또

아이들도 저애의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린이집 교사G)

조영달(2006)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인 경우 초등학교시절 17.6%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였으며, 따돌림의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어서’가 34.1%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직 또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취학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여 학령기에 나타날 수 있는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하여 시사한다고 보아진다.

3. 어린이집에서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실태 및 어머니와 교사의 요구도

1) 어린이집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실태

어린이집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반아동과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여성결혼이민자 3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실시여부를 교사에게 물어 <표 7>에 정리하였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 자녀가 취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오직 2곳의 어린이집만이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 중 한 곳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그 어머니를 위한 한국문화 익히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하는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교사를 면담한 결과 실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1년에 두 번 특별 이벤트성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실시 횟수와 빈도,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계획 면에 있어서 매우 미흡하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다음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고 응답한 1개 어린이집의 교사와 면담한 내용이다.

“연간 교육계획안에 세계 여러 나라의 단원을 학습할 때 다문화교육을 합니다. 한국문화 익히기는 추석 단원일 때 여성결혼이민자 어머니들에게 송편 만들기와 한복 입기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이 매우 즐거워 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도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가능하다면, 일반아동을 위한 다문화교육과 함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는 물론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을 정말 하고 싶어요” (어린이집 교사C).

2) 어린이집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일반아동,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그 어머니 등 3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를 조사하여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어머니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체 평균의 차이가 있었고 ($F=3.34$, $p<.05$),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른 프로그램보다 어머니모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어머니들은 본인의 출신국 언어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큰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도상국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이 금지시 되는 분위기에 자라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 어머니의 모국어 모두 미숙한 경우가 많다는 교육인적자원부(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도 부각되었는데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자녀가 다른 한국 아이들과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었다.

“어머니가 외국인인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친구랑 잘 놀 으면 좋겠어요. 우리아이를 특별한 아이로 생각하는 것이 안 좋아요.” (중국어머니 A)

<표 7> 어린이집에서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실태

(N=20)

대상	항목	실시한다	실시하지 않는다
일반아동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2(10.0)	18 (90.0)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1 (5.0)	19 (95.0)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어머니모국어 교육 프로그램	-	20 (100.0)
	한국문화 익히기(한국요리, 문화체험)	1 (5.0)	19 (95.0)
여성결혼이민자 어머니	한국어교육	-	20 (100.0)
	고충상담 (자신, 자녀, 가정)	-	20 (100.0)

<표 8>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 (N=58)

대상	구분	평균(표준편차)
일반아동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3.38 ^a (.70)
여성결혼 이민자 자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3.26 ^a (.74)
	어머니모국어 교육 프로그램	2.88 ^b (.97)
여성결혼 이민자	한국문화 익히기	3.33 ^a (.66)
	한국어교육	3.33 ^a (.73)
	고충상담	3.21 ^a (.70)
F		3.34 ^{**}

** p<.05

“엄마나라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살 거예요. 한국말을 잘해야 학교공부 잘해요”(필리핀어머니 A)

“우리아이 아빠는 한국사람 이에요. 베트남보다 한국어

더 좋아요. 만약 이 아이가 베트남에 가면 내가 통역해 주면 되니깐 (어머니모국어 교육) 필요 없어요” (베트남어 어머니C).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에 따라 달랐으므로 한국어실력에 따른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를 알아본 결과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들의 한국어 실력에 따라 자녀의 한국어 교육, 자녀의 어머니모국어 교육, 어머니 한국문화 교육, 어머니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일반아동을 위한 다문화 교육과 어머니를 위한 고충상담에 대한 요구도는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먼저 자녀를 위한 교육에서 한국어 교육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한국어를 매우 잘한다고 응답한 집단만 자녀의 한국어 교육 요구도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았다. 한 편,

<표 9> 어머니 한국어실력에 따른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어머니 요구도

대상	구분	수준	N	평균(표준편차)	F	유의확률
일반아동	다문화 교육	매우잘함	3	3.00 ^a (.00)	1.686	.181
		잘 함	17	3.29 ^a (.69)		
		부 족	28	3.57 ^a (.57)		
		매우부족	10	3.10 ^a (.99)		
		합 계	58	3.38 (.70)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한국어 교육	매우잘함	3	2.33 ^a (.58)	3.992 ^{**}	.012
		잘 함	17	3.06 ^b (.83)		
		부 족	28	3.54 ^b (.58)		
		매우부족	10	3.10 ^b (.74)		
		합 계	58	3.26 (.74)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어머니	매우잘함	3	3.67 ^a (.58)	2.742 ^{**}	.050
		잘 함	17	2.88 ^{ab} (.86)		
		부 족	28	3.04 ^{ab} (.99)		
		매우부족	10	2.20 ^b (.92)		
		합 계	58	2.88 (.97)		
여성결혼이민자	어머니 한국문화	매우잘함	3	2.67 ^a (.58)	3.350 ^{**}	.026
		잘 함	17	3.12 ^{ab} (.70)		
		부 족	28	3.57 ^b (.50)		
		매우부족	10	3.20 ^b (.79)		
		합 계	58	3.33 (.66)		
여성결혼이민자	어머니 한국어 교육	매우잘함	3	2.33 ^a (.58)	5.883 ^{***}	.001
		잘 함	17	3.00 ^{ab} (.87)		
		부 족	28	3.64 ^b (.49)		
		매우부족	10	3.30 ^b (.68)		
		합 계	58	3.33 (.73)		
여성결혼이민자	어머니 고충상담	매우잘함	3	4.00 ^a (.00)	1.682	.182
		잘 함	17	3.24 ^b (.66)		
		부 족	28	3.18 ^b (.67)		
		매우부족	10	3.00 ^b (.82)		
		합 계	58	3.21 (.69)		

*p<.1 **p<.05 ***p<.001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에 대하여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경우 가장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M=2.20) 매우 잘하는 경우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M=3.67).

한편, 어머니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국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이 매우 잘한다고 응답한 어머니들보다 더 필요하다고 느꼈고, 한국어 교육에 대하여도 매우 잘 한다고 응답한 어머니들보다(M=2.33) 부족하다고 느낀 어머니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M=3.30).

3) 어린이집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요구도

어린이집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하여 일반 아동, 여성결혼이민자,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냐고 교사에게 물어본 결과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체 평균의 차이가 있었고(F=3.39 p<.05),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특히 다른 프로그램보다 어머니 모국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들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어머니 모국어 언어를 아동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큰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아동에게 어머니 모국어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한 교사의 생각이다.

“한국어도 미숙한 아이들에게 어머니 나라 언어교육이 필요할까요? 물론 배워두면 좋겠지만... 지금당장은 필요하지 않아요. 한국말을 잘하게 되고, 또 그 아이가 이다음에 커서 본인이 원한다면 몰라도...” (어린이집교사A)

“어머니 모국어 교육이요? 누가 가르쳐요? 한국어도 잘 모르는 아이인데... 현재 어린이집상황에선 어찌 할 수도

없지요. 만약 어머니(여성결혼이민자)들이 원하여 본인들끼리 그룹으로 하여 어머니들이 직접 가르친다면 몰라도....하여튼 필요 없지요. 어린이집에 그 아이들(여성결혼이민자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린이집 교사B)

교사와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및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교사들이 부담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교사와의 심층면담 결과이다.

“요즘 다문화, 다문화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다문화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의 반에도 몇 명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 어려서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학교가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일반아이들을 위해서도 다문화교육을 한다면 좋겠지만.... 꼭 그 아이들만(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시간도 없고 어려워요.” (어린이집 교사G)

“그 아이들(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어린이집에 그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어요. 또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생각이 많이 안 해봤어 몰라요. 만약 선생님 같은분(본 연구자 지칭)이 특별히 와서 도와준다면 몰라도...”(어린이집 교사 B)

“여성결혼이민자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센터에서 다 하고 있어요. 만약 한다고 해도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남편이 차로 데려다 줘야하는데... 집도 멀고 돈버는 어머니들도 많고요. 어린이집에서는 여러모로 하기가 어렵지요.” (어린이집 교사G)

IV. 결론

본 연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취학전 여성결혼이민자 자녀가 많은 지역인 충남 금산을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어린이집 취원현황을 알아보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어머니로써 느끼는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느끼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어려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여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와 교사의 요구도를 알아봄으로써 국내에 매우 부족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표 10>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요구도 (N=20)

대상	구분	평균(표준편차)
일반아동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3.35 ^a (.75)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3.2 ^a (.62)
	어머니모국어 교육 프로그램	2.85 ^b (.67)
여성결혼이민자	한국문화 익히기	3.25 ^a (.72)
	한국어교육	3.6 ^a (.60)
	고충상담	3.55 ^a (.60)
F값	3.39**	

p<.05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산군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는 총 102명이었고 이 중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52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더 많았으며 특히 2세와 3세 유아가 가장 많았다. 어머니 출신국별로는 베트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설동훈·김윤미·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2005)에서 2003년 이후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가 급상승하였다는 보고를 이용하여 농업인구가 많은 금산지역에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 이민자 자녀들이 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양육 어려움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들은 한국문화이해 부족으로 자녀교육이 힘들다고 느꼈고 자녀의 한국말 미숙을 자녀가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교사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언어발달 미숙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였다. 조영달(2006)의 연구에서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는 것이 제일 높은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박미경·엄정애(2007)도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어머니가 가진 미숙한 한국어 구사능력이 교사와 어머니간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저해하며 어머니가 교사와의 교류를 회피하고 소극적인 자녀교육의 태도를 취하므로 자녀교육의 가장 큰 난점이 된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출신국별로 여성결혼이민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보면 베트남 어머니들이 자녀의 언어미숙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하였고 일본, 필리핀, 중국출신의 어머니들은 상대적으로 한국문화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가장 높게 답하였다. 이는 베트남 어머니들의 경우 다른 나라 출신과 비교할 때 한국 거주 연한이 상대적으로 짧아 한국어 숙달이 아직 미숙한 결과이기도 하다.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 어머니의 경우 한국어실력이 자녀들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한국어 습득 문제가 자녀들의 교육에 부정적인 결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책임감과 어려움을 동시에 호소하고 있었다. 이렇게 어머니가 주 양육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가족 중 주로 아버지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나 김경숙 (2007)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아버지가 연령이 높아 적절한 유아지도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또한 생업에 종사하는 등으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 어머니의 역할을 보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 금산 지역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베트남어로 된 한국어교본 개발이 시급하고 한국어 교육 뿐 아니라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문화에 적응을 돕는 구체적인 한국문화교육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언어 습득을 보완하기 위한 보상적 언어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린이집에서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특별 프로그램이 실시된다하더라도 일년에 한 두 번, 이벤트성 행사에 그쳐 실제 프로그램의 실시 횟수와 빈도, 구성 및 계획 면에 있어서 매우 미흡하였다.

이러한 결과와는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화 익히기, 한국어 교육, 고충상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는 매우 높았다. 다만 자녀에게 어머니의 모국어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어머니의 요구도가 낮았고 특히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에 따라 한국어를 잘 하는 어머니만이 어머니의 모국어 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즉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들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육이 우선적이나 어머니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한 후에는 자신의 모국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 어머니의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에게도 어머니 나라에 대한 이해와 이중 언어의 학습지원을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미경, 2007).

한편, 교사들도 일반아동을 위한 다문화교육,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어머니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교육, 고충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려움과 부담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다문화적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을 주장한 김경숙·공진희·이민경(2007)의 연구와 같이 교사들이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과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는 인력부족과 경제적, 시간적, 공간적 문제 등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

는 프로그램에 각 어린이 집이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어려움을 보다 심도 깊게 알아보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고 또한 심층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제 이들이 부딪치는 생활 속의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 상 어려움이 많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자료 수집 과정 내내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다. 먼저 자료수집을 허락하는 어린이집 교사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만나기가 어려웠다. 교사들의 경우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심층 면담 등에 참여를 꺼려하였으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모두 매우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를 승낙을 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더 어려웠는데 특히 심층면담을 허락하기 까지 연구자가 10주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최근 방송과 언론에서 쏟아지는 관심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였고 국제결혼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 방송태도에 대하여 피해의식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연구할 때에는 일회적 자료수집보다 관계 중심의 종단적 자료수집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금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할 때 주의를 요한다. 비록 금산 지역이 농업 중심의 사회이고 최근 급증한 농촌의 국제결혼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하여야 한다. 추후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 여성결혼이민자,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금산, 어린이집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다문화가정자녀현황 교육인적자원부(<http://www.moe.go.kr>)
- 김갑성 (2006) 한국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공진희·이민경 (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가정 유아 부모의 특성과 유치원 교육 참여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9(4), 311~335
- 김경자 (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적응.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화, 신혜은 (2008) 다문화가정 취학 전 유아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아동학회지, 29(2), 155~176
- 김오남 (2006) 결혼이민자자녀의 아내학대와 영향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4)
- 김재영 (2006) 귀국 중학생들의 언어소실.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 (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결혼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 엄정애 (2007) 결혼이민자 가정의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 한국교원교육연구, 24(1), 5~29
- 박상희 (2006) 이중 언어 환경 아동의 조음과 음운패턴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4), 143~152
- 박선영 (2006) 다문화 교육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순 (2007) 다문화시대 언어교육 정책.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국어연구소 학술대회자료집. 13~24
- 박은애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조사 연구; 경상남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여성가족부 (2007)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 정책 방안연구. 여성 가족부
- 오성배 (2005) 코시안을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만들 것인가? 교육정책포럼, 118, 13~16
- 오성배 (2007) 외국인 이주 노동자 교육기회 실태 탐색. 한국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 안은미 (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숙 (2008)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경험 이해.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훈성 (2007) 경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문화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희 (1997) 다문화 교육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정지영 (2006)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아동의 특성 및 교사의 교육적 갈등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영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탄티튀히엔 (2006) 국제결혼 베트남 이주여성의 현실과 적응.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8) DB. 인구동태조사 <http://www.kosis.nso.go.kr>
- 하밍타임 (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한국염 (2005) 국제결혼 영역에서의 이주여성. *아시아이주여성 국제포럼: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 여성인권*, 102~114
-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2005) *이런건, 궁금해요; 문답으로 풀어보는 한국 생활 법률 정보; 이주여성용*
- 한남대학교 한국어학당 (2006) 대전, 충남지역 이주민 한국어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한남대학교 한국어학당
- 행정자치부 (2007) *지사체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행정자치부
- 홍영숙 (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상심 (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특성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dams, L.D. & Kirova, A.(2006) *Global migration and the education of children*. In L. D. Adams & A. Kirova (Eds.), *Global migration and education: Schools, children and famili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pp. 1-12.
- Seefeldt, C. (2005). *Social studies for the preschool/primary child*. New Jersey: Pearson Merrill
- (2009. 1. 10 접수; 2009. 5. 26 채택)